통도사 삼소굴 인연담 '법향'으로 남다

경봉선사 38주기 추모다례서 〈삼소굴 법향〉 봉정

스님과 불자 50명 이야기담아
7월 17일 극락암서 봉정 진행
경봉장학회 장학금도 수여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경봉문도회는 7월 17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당 정석대종사 제38주기 추모다례 및 〈삼소굴 법향〉 봉정식' 를 봉행했다.



삼소굴 법향 책표지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은 근대를 대표하는 선사 경봉 스님(1892~1982)의 처소였다. 삼소굴에서 만나 나눈 담화는 곧 법담이 되고 인생을 결정하는 화두가 됐다. 이러한 법담을 담은 책이 봉정됐다.

경봉문도회(문장 원명)는 7월 17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당 정석 대종사 제38주기 추모다례 및 〈삼소굴 법향〉 봉정식' 를 봉행했다. 추모다례 및 〈삼소굴 법향〉 봉정식은 △불공 △추모다례 △〈삼소굴 법향〉 봉정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 △문도대표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봉문도회 문장 원명 스님, 원산 스님, 법산 스님, 문도회장 무애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이영채 일념장학회 이사장, 김광식 동국대 교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삼소굴 법향〉은 경봉 스님과의 인연담을 채록해 출간한 평전이다. 평전 〈삼소굴 법향〉은 경봉 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제방 스님, 통도사 문중 스님, 직계 제자 스님, 직계 손상좌 및 재가불자와의 인연담으로 엮여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 원로의원 인환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석정 스님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스님들과 김선근 한국불교학회 회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강수길 숙우회 대표 등 재가불자와의 인연 등 총 50명의 경험과 담화가 담겼다. 경봉 스님의 생생한 일상과 생활 속 법문에 영향을 받아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책은 경봉 스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연보 등이 담겨 객관성을 더했으며 총 5000권의 법공양으로 출간됐다.

경봉문도회 문장 원명 스님은 책 간행사를 통해 "저희 은사이신 경봉 스님의 가르침은 영축산 꼭대기에서 시작해, 자장동천을 거쳐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온갖 갈등과 어리석음으로 목적을 잃은 이들에게 가뭄에 비를 기다리던 농부가 비를 만난 것처럼 감로수가 되어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스님은 "여기에 실린 사진과 글을 통해 참 주인공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정식에서 경봉문도회는 책 출판을 위해 노력한 김광식 동국대 교수와 진웅산 백산출판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각 50만원 4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극락암 호국선원을 비롯해 보광선원, 서운암 무위선원에 수행지원금과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에 연구비 800만원을 전달해 총 4100만원을 지급했다.

문도를 대표해 원산 스님은 "문도회의 의지를 담아 늦게나마 삼소굴 평전을 출간하고 봉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큰스님의 열반 38주년을 기리기 위해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스님들께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편찬위원장 법산 스님(前 동국대 이사장)은 "스님의 법향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스님의 승기가 이 사회를 새롭게 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봉문도회는 매년 경봉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다례재를 봉행하고, 경봉 스님의 유지였던 인재불사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에도 경봉문도회는 2020년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동국대 석·박사 및 제주대, 중앙승가대 등 29명의 학인 스님에게 각 100만원 총 2900만원을 전달했으며, 통도사 승가대학 8명에게 치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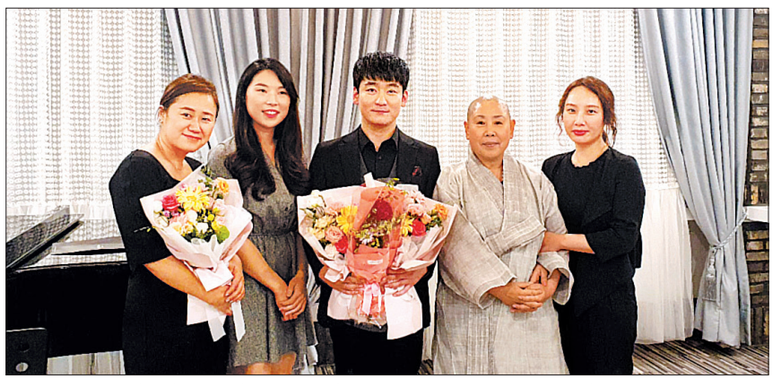


경봉 스님

詩 바람이 전하는 말, 가곡 되다

한국가곡 100주년 기념
가곡 발표회서 첫 공개

보혜 스님 · 강한별 씨 콜라보
불교여성문인 섬세한 감성 담아
깨달음 게송 아닌 현대시로 풀어



보혜 스님의 시 '바람이 전하는 말'이 7월 17일 B.O.F 아트홀에서 열린 '한국 가곡 100주년 우리가곡 이야기-돌아돌아 마침내 한국'이란 가곡 발표회에서 발표됐다. 발표회 후 기념 촬영(오른쪽 두 번째부터 보혜 스님, 김지현 테너, 강한별 작곡가)

부산 기장 청량사 보혜 스님의 시 '바람이 전하는 말'이 가곡으로 재탄생됐다. 강한별 작곡가와의 콜라보이다. 한국 가곡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발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보혜 스님의 시 '바람이 전하는 말'이 7월 17일 B.O.F 아트홀에서 열린 '한국 가곡 100주년 우리가곡 이야기-돌아돌아 마침내 한국'이란 가곡 발표회에서 발표됐다.

발표회에서 김지현 테너가 부른 곡, '바람이 전하는 말'은 2017년 6월에 작시(作詩)됐다.

길 떠난 나그네여 바람소리 들리나요/ 빈 몸 나와 빈손인데 아쉬울 건 없지만은 / 번민 속에 한낱 인생 한줌의 흙이거늘/ 바람이 전하는 말 허공 속에 답해주오.

무념무상 수행의 길에 들려오는 바람이 전하는 말은 부처님의 따뜻한 응원이다. 수행의 가치와 부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노래했다. 보혜 스님의 깨달음을 담은 오도송과 같다. 게송으로 담기는 선시의 형태를 벗어나 문학인의 감성으로 깨달음을 녹였다.

보혜 스님은 "시를 작성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순리'를 알게 됐다. 흐름을 따른다는 '수류'처럼 걸림도 막힘도 없이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 때 나온 시이다"며 "그 당시 행복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얽매임 없이 격식에 걸림 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대하니 더 좋은 법문과 당당함으로 이끌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혜 스님은 2011년 〈문학과 문학타임〉으로 시단에 등단한 시인이다. 부산불교문인협회와 부산여성문학인협회에서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며 여성의 섬세한 시어를 불교문학에 담아 불교계 문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차와 관련한 문화활동으로 문화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스님은 한국문학타임 대상, 한국꽃문학상 우수상, 부산불교문인협회 작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집 〈마음에 연꽃피고〉, 〈마음을 보았는가〉, 〈바람이 전하는 말〉을 출간했다. 매년 시 낭송 대회를 열어 한국 문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도 제7차 전국시낭송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곡 '바람이 전하는 말'은 강한별 작곡가와의 만남으로 탄생했다. 2019년 청량사에서 열린 세 번째 시집 출판 기념회에서 김지현 테너가 시를 보고 강한별 작곡가에게 작곡을 제안했다.

강한별 작곡가는 "저는 작곡을 하지만 사실 감성에 젖기 보단 이성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스님의 시는 슬프게 다가왔다. 마냥 허망한 것이 아닌 덤덤하게 슬픈 느낌이었다. 시를 읽는 순간 배경이 바로 전달되었고 곡에 그 느낌을 담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를 처음 봤을 때 곡을 길게 적고 싶어 스님의 시 '휴심(休心)'을 덧붙였다. 당시 스님도 같은 마음으로 '휴심'이란 시를 덧붙이면 좋겠다고 생각해 뒀는데 이심전심처럼 똑같이 작성해 놀라기도 했다"며 작성 과정을 설명했다.

강한별 작곡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졸업하고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성악 혼성 팝페라 그룹 '블랑누아', 중국 유나이티드 소녀방송합창단,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 창작국악팀 '모락모락' 등에서 반주자 및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오케스트라와 국악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는 신선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으며 청중과 호흡하는 대중적인 예술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바람이 전하는 말'도 가곡이지만 전통음악에 가까워 사극에 어울리는 영화음악 OST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람이 전하는 말'은 오케스트라와 국악 버전으로 새롭게 녹음돼 올해 11월 8일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 주최하는 기장 국제차문화축제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김해 여여정사, 삼국유사와 나랏말싸미 북 콘서트

김해 여여정사에서 〈삼국유사〉와 한글창제, 그리고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해 다시 들어보는 자리가 열렸다.

김해 여여정사(주지 도명)는 7월 15일 '정진원 교수와 조철현 감독이 함께 하는 K-Classic 북 콘서트'를 경내 법당에서 개최했다.

북콘서트는 〈삼국유사〉 및 한글 창제,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불교이야기 등 다양한 역사를 학자적 시선으로 풀어 본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진원 교수는 〈삼국유사〉와 〈월인석보〉를 통해 '금관가야의 역사성'과 '한글창제에 불교가 끼친 영향'을 설명했다.

정진원 교수(동국대 삼국유사학연구소)는 "김해 가야국을 허왕후와 관련해 이해하지만 사실 수로왕의 이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수로는 산스크리트어로 태양, 태양신, 하늘을 뜻한다. 이것을 수르라고 읽는다"며 "훈민정음으로 풀어 쓴 경전 〈월인석보〉에는 한글 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소헌왕후의 이야기가 나온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책이다"고 설명했다.



김해 여여정사는 7월 15일 '정진원 교수와 조철현 감독이 함께 하는 K-Classic 북 콘서트'를 경내 법당에서 개최했다.

영화 '나랏말싸미'를 연출한 조철현 감독은 "영화에서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유래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풀어내고 불교의 역할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아울러 세종대왕의 고뇌를 함께 녹여내 대중들과 새로운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북콘서트에는 주지 도명 스님,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회장 혜진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송산 스님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도명 스님은 "어렵게 모신 교수님과 감독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며 "역사에 대해 뛰어난 강의를 해주신 정 교수님과 여러 영화에서 불교적 가치를 담아주시는 감독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국대 경주캠, '사회통합기관' 현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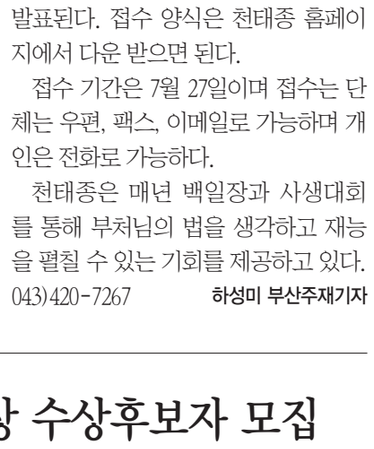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민자사회통합센터가 법무부 연계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재학중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영경)는 7월 21일 교내 백상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기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이민자사회통합센터가 법무부가 지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기관'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과 이문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비롯한 교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이영찬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민자사회통합센터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기관 선정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보다 강화되고 기존 유학생들의 이탈방지와 유학생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7월 21일 교내 백상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기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이문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1회 천태어린이 글·그림 대잔치

대한불교천태종이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를 위한 백일장을 개최한다.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전국 천태종 사찰에 다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1회 천태 어린이·청소년 글·그림 대잔치'를 8월 23일에 개최한다.

전국에 있는 천태종 사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회 부문은 산문, 운문 등 글짓기와 그림그리기이다. 그림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파스텔화 등 모든 장르이며 각 부문별 주제는 대회 당일 발표된다. 접수 양식은 천태종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접수 기간은 7월 27일이며 접수는 단체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며 개인은 전화로 가능하다.

천태종은 매년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통해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043)420-726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8회 영축문화대상 수상후보자 모집

봉사실천 · 학술문화 · 포교원력 3부문… 마감 10월 30일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은 '제8회 영축문화대상 수상후보자'를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봉사실천상, 학술문화상, 포교원력상 총 세 부문이다.

봉사실천상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사회를 이끄는 개인 및 단체에 수요된다.

학술문화상은 전통문화 및 불교 연구에 이바지하고 발전 계승시킨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단체, 포교원력상은 불법홍포에 매진해 불교인재 양성 및 가람수호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연령, 국적, 학력에 구분이 없다. 스님의 경우 조계종 소속으로 제한된다.

수상자 발표는 12월 10일이며 시상식은 12월 2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각 부분별 시상금 천만원과 상패이다.

영축문화재단은 "월하 스님은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을 지내며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하고 불교정화 운동의 주역이며 동국대 이사장으로 후학 양성에 헌신하셨다. 그 정신을 잇고자 함이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식은 영축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가능하다. 010-4581-259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